

“이 판국에...” 광주 남구의회 외유 물의

광주 남구의회 의원 전원이 최악의 경기 불황 속에서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조영표 의장 등 의원 12명 전원은 3개팀으로 나눠 중국, 터키, 미국 등을 방문키로 했다.

신인용 총무사회위원장 등 2명은 중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상하이와 항저우 등을 오는 12~16일 5일간 일정으로 다녀올 예정이다. 조 의장 등 5명은 15일부터 8일동안 터키 이스탄불·소피아성당 등을, 유정심 의원 등 5명은 27일부터 7일간 미국 그랜드캐니언 등을 방문하게 된다.

12일부터 3개팀 나눠 中·美·터키 방문

시민단체 “서민 고통 외면” 강력 반발

이들의 연수 경비는 의원 국외여행비(의장·부의장 250만원, 의원 180만원)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할 계획이다.

남구의회는 이같은 의원 해외연수 계획을 오는 4일 남구의회 의원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열어 심의, 확정할 방침이다. 남구의회는 이번 해외연수

를 위해 통상 2월에 열리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지난 1월로 앞당겨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표 남구의회 의장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해외연수는 규정상 가게 돼 있다”며 “연내 아무 때나 가면 되지만 올 하반기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 준비로 사실

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의원 전원이 2월에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남구의회 해외여행심사위원인 참여자치21 장근일 전 감사는 “해외연수 자체를 뒤라할 수는 없지만 연수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의원들이 사전 학습을 통해 연수를 효율적으로 하고 사후 보고서도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후계구도 진력...對南 군사도발 우려도

■ ‘김정일 체제 3기’ 준비, 北 2월 행보는

김정일 체제 3기 출범을 앞둔 올해 2월은 북한에 그 어느 해보다 안팎으로 분주한 달이 될 것 같다. 북한에서는 내달 8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와 3월말 또는 4월초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를 통해 김정일 체제 3기가 공식 출범한다.

그런 만큼 대의원 선거를 계기로 건강이상설의 김정일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며, 후계구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도 2월의 북한 행보는 남한과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또 4년전 2월10일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고, 2년전 2월에는 북핵 6자 5차회담 3단계 회의를 통해 ‘2.13합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달은 북한으로선 대미관계와 핵문제에서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달이기도 하다.

반면 대남관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긴장과 대립의 파고를 높여갈지가 주목 대상이다.

북한은 지난달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조평통 성명을 통해 대남 “전면 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간에 합의된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조항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현 남북관계를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이라고 위협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번에 문제삼은 남북기본합의서는 비핵화공동선언과 함께 17년전인 1992년 2월19일 발표됐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날을 기해 다시 한번 대남 강경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대처”를 고수하는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대통령의 취임 1주년(2·25)을 맞아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완강한 대남 대결 태도는 이달 하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인 북핵 6자회담의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에서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정동채 前 장관 후원금 논란

〈국제문화도시교류협〉

“기업 부담” 지적에 “정당한 모금” 반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광주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의 후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 한파로 가뜰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부담을 지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정 전 장관은 정당한 모금 활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와 광주지역 기업들에 따르면 협회 이사장인 정 전 장관이 최근 광주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 정 전 장관은 A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5곳 정도의 기업에 후원금을 요청, B업체로부터 1천만원의 후원금을 확보했다.

정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몇몇 기업에 후원금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구나 강요한 적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가 직접 후원금 모금에 나선 것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지방정가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정 전 장관은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는 민간 차원에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며 “후원금 모금은 협회의 주요 업무중 하나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4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 공식 해명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오바마 “이라크 미군, 1년내 철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이라크 주둔 미군의 상당수가 1년 내에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NBC TV와 인터뷰에서 상당수의 이라크 주둔 미군이 내년엔 프로퓫톨 챔피언십전진 슈퍼볼이 열릴 때에는 집에 있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정책을 정식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전에 반대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라크 주둔 미군을 16개월내에 철군한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난달 31일 실시된 이라크 지방선거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라크인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책임을 담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마스, 이집트 1년 휴전안 수용”

이집트가 제안한 이스라엘과의 1년 휴전안을 하마스가 수용했다고 아랍권 방송인 알-아라비아TV가 하마스의 소식통을 인용해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의 휴전중재 안 중 핵심사항인 이집트-가자지구 사이의 라파 국경통과소 관리문제와

관련,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보안군이 이곳에 배치되는데 동의했다.

하마스는 그간 경쟁정파인 파타소속원들이 주축을 이루는 자치정부의 보안군을 라파 국경통과소에 배치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연합뉴스



초토화된 가자지구...그래도 희망은 있다

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북부 가자지구의 파괴된 주택가에서 한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합격은 김영에서

강제연수생/수업/합격반/특수반
사립고/특강/외국대학/외국대학내재비
★ 2009년 김영수를 합격중고생

합격반반 문자상담 010-7766-1254

www.kimyoung.co.kr

그동안 12만 5천여명 편입합격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바로 뒤 (062)227-8088

2010학년도 편입대비

1. 2009년 11월 15일~17일
2. 2009년 12월 12일~14일
3. 2010년 1월 9일~11일
4. 2010년 2월 6일~8일

대학편입 대입비: 2월 25일

IONIA

실용영어 수습회 및 수성기법 무료체험단모집

▶ 모집기간: 2009. 2. 15(수) ~ 2009. 2. 28(토)
▶ 모집대상: 중·고등학생 100명
▶ 모집지역: 광주광역시 8개 구·군에 80여개 학교

▶ 혜택: 1. 100% 장학금
2. 100% 장학금 지급(수업료, 교재비, 교복비 등)
3. 100% 장학금 지급(수업료, 교재비, 교복비 등)

▶ 문의처: 062-227-8088

▶ 신청처: 062-227-8088

호남대학교

직원모집

글로벌 캠퍼스의 미래를 위해
당 직원을 찾습니다.

호남대학교

● 채용분야 및 직책과제

직책	분야	주요 업무
교직원	행정	교직원 인사, 급여, 복지 관리
교직원	교육	교수, 강사, 조교사, 연구원 관리
교직원	연구	연구비 관리, 연구실 관리
교직원	시설	시설 관리, 안전 관리

● 지원자격

1. 학력: 대학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
2. 경력: 1년 이상 대학 행정, 교육, 연구 관련 경력
3. 기타: 학부 전공 분야와 관련된 학위, 자격증 보유

● 모집처: 062-227-8088

● 지원처: 062-227-8088